

Global Economy

美 6월 FOMC, 경제회복에 대한 확신

Economist 김연진_02)368-6186_yjk130@eugenefn.com

Strategist 허재환_02)368-6176_jaehwan.huh@eugenefn.com

미 연준 6월 FOMC→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

미 연준은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0.00%-0.25%)를 동결하고 자산매입 규모를 유지했다. 초과지준금리(IOER), 역레포금리(ON RRP)는 +5bp 씩 인상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 포인트는 ① 고용과 물가상승에 대한 연준의 판단, ②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시기였다.

고용과 물가에 대한 스탠스 변화

파월 의장은 고용에 대한 입장 변화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고용이 부진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으나 6월 FOMC 기자회견에서는 “I think it is clear, and I am confident that we are on a path to a very strong labor market”이라고 답하며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확신**을 보였다.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시적”이라는 입장은 유지했으나 물가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PCE 물가전망을 2021년 기준 +2.4%에서 +3.4%로 +1.0%p 큰 폭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2022년과 2023년 물가 전망을 각각 0.1%p 씩 상향했다. 2021년 기저효과 및 병목현상으로 물가상승률이 3%대를 기록 후 2022-2023년 하락하지만 여전히 2%를 상회한다는 점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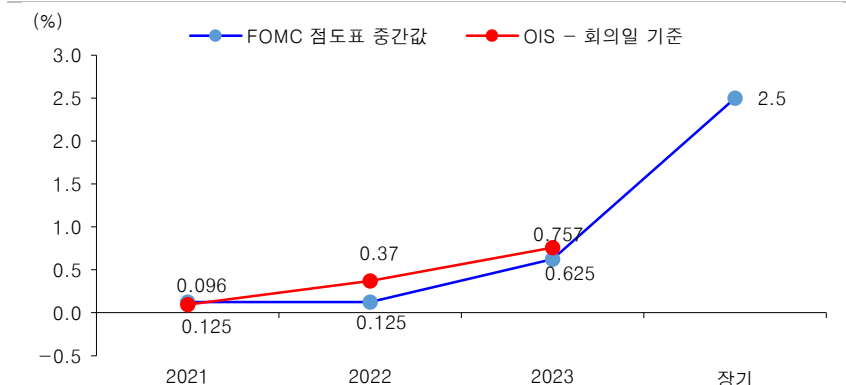
테이퍼링 더 가까워져

연준은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성명문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이 줄어들었다”고 언급했고 4월에 언급한 “현재 진행 중인” 공중보건위기에서 수식어를 삭제했다. 코로나 19 우려가 개선되며 테이퍼링 논의가 활발해졌다. 파월 의장은 다가오는 FOMC 회의들에서 데이터로 판단할 것이다. 9월 선제 가이던스, 연말-22년 초 테이퍼링 시작 가능성 전망을 유지한다.

달러, 완만한 상승 가능성

6월 FOMC는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2021년 +7.0%로 상향됐다. 미국의 다른 주요국에 비해 강한 **경제회복 기대**는 달러화 강세요인이다. 또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미 국채 금리가 추가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주요국에 대한 강한 실질 금리 매력은 달러의 완만한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연준 점도표, 2023년 금리 2회 인상 시사



Macro Economy Check Point

- 6월 FOMC, 금리 동결 및 자산매입 규모 유지
- 고용 회복에 대한 강한 확신과 2%를 상회하는 2021-2023년 물가전망은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
- 점도표에 따르면 2023년에 최대 2회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져
-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및 테이퍼링 전망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

6 월 FOMC 기자회견 주목 포인트

1) 고용 시장 전망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 전망에 대해 매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구인 수요가 매우 크고, 9월 학교 개학, 9월 이후 실업수당 프로그램 종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고용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빠른 은퇴 우려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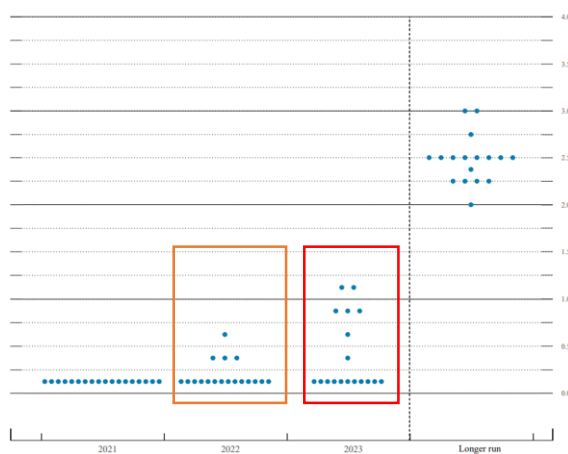
2) 물가상승에 대한 입장

목재 가격, 중고차 가격 등 물가상승을 이끄는 품목들이 경제재개와 관련이 있고 목재 가격이 최근 하락한 것처럼 공급 확대로 가격이 추후 안정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다만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에 대한 시기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임금상승은 경제회복을 뜻하기에 긍정적으로 보며 노동 수요와 공급이 근접하면서 몇 개월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3) 금리 인상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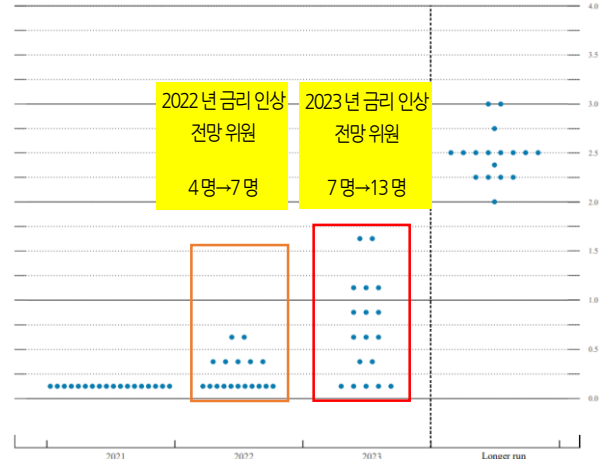
점도표에 따르면 2023년 금리 인상이 2회 전망됐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의 개별 의견이며 연준 전체 전망을 아니며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점도표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확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테이퍼링 논의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도표 1. 3월 FOMC 점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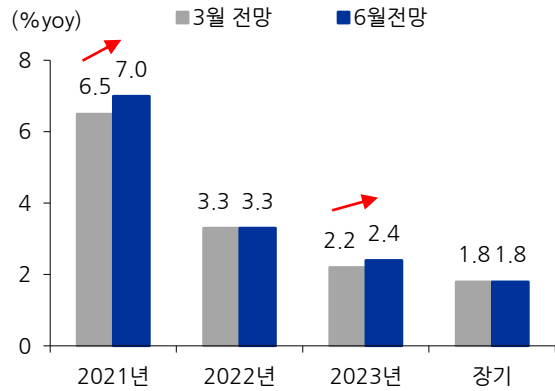
자료: FED,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 6월 FOMC 점도표, 23년 금리 인상 가능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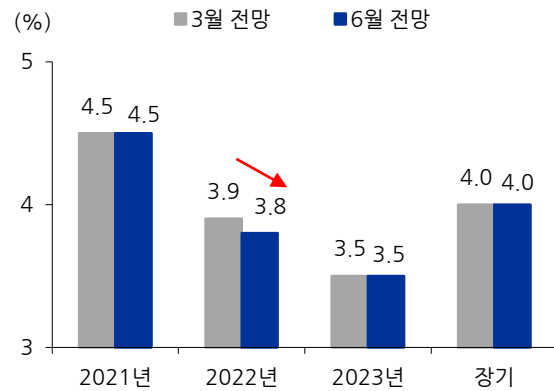
자료: FED,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3. 미국 2021년 실질 GDP 전망 7.0%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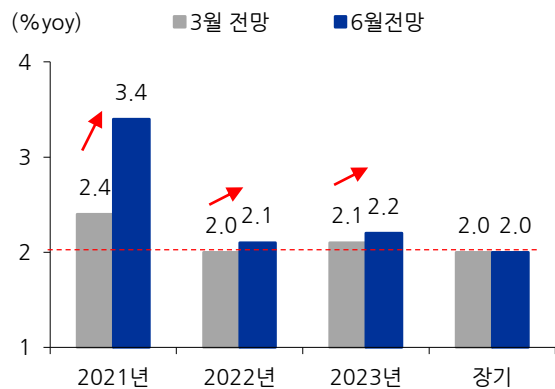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참조: 4분기 기준 전년동기비 성장률 중간값

도표4. 미국 실업률 전망, 2022년 추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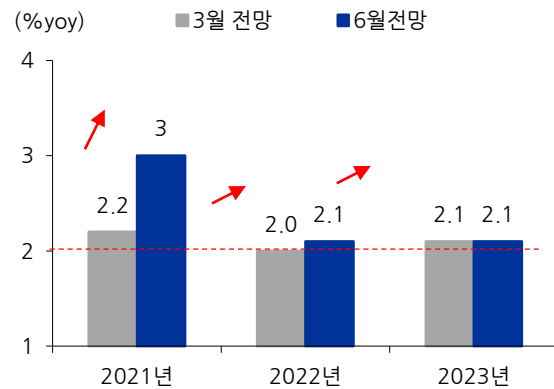
자료: FED, CEC, 유진투자증권
참조: 4분기 기준 전년동기비 실업률 중간값

도표5. 미국 PCE물가전망, 2021년 3.4%로 크게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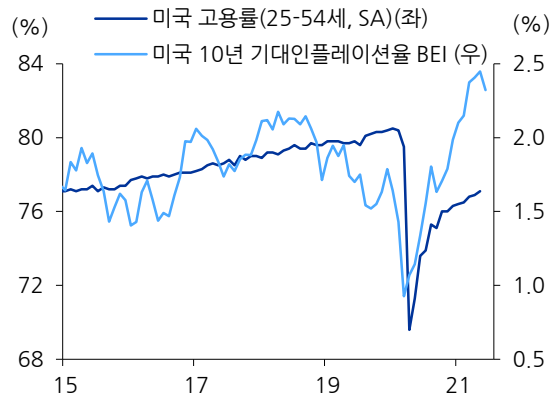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참조: 4분기 기준 전년동기비 PCE 물가상승률 중간값

도표6. 미국 핵심 PCE 물가 전망, 2021-2022년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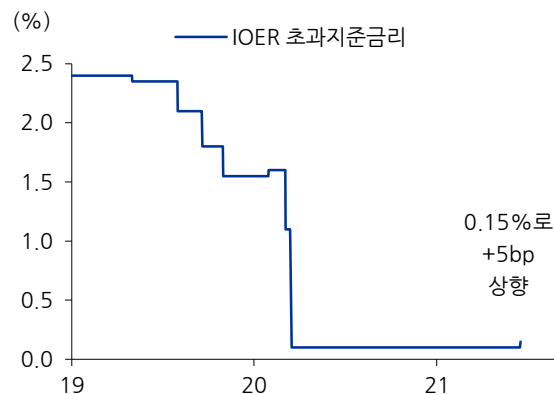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참조: 4분기 기준 전년동기비 핵심 PCE 물가상승률 중간값

도표7. 미국 기대 물가에 비해 고용 회복 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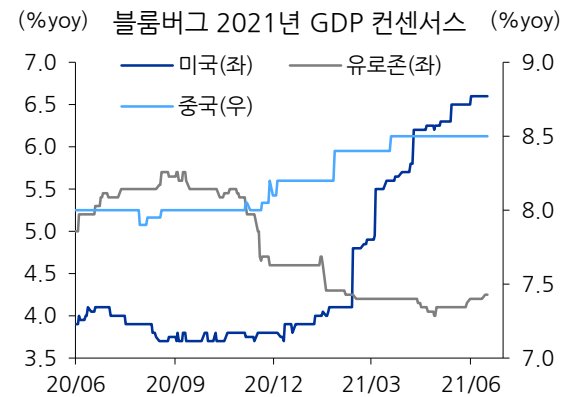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8. 초과 기준금리 +5bp 상향 조정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9. 블룸버그 미국 21년 경제 전망, 6.6%로 상향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0. 미국 상대적 금리 매력, 달러지수 상승 요인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참조: 주요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웨덴, 물가 연동 국채 10년물 기준

도표 11. 미 연준 통화정책회의 성명문 변화: 4월 vs 6월

4월	6월
<p>The COVID-19 pandemic is causing tremendous human and economic hardship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Amid progress on vaccinations and strong policy support, indicators of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have strengthened.</p> <p>The path of the economy will depend significantly on the course of the virus, including progress on vaccinations. The ongoing public health crisis continues to weigh on the economy, and risks to the economic outlook remain.</p> <p>With inflation running persistently below this longer-run goal, the Committee will aim to achieve inflation moderately above 2 percent for some time so that inflation averages 2 percent over time and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remain well anchored at 2 percent.</p> <p>코로나 19 팬데믹은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난 인적 및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백신과 강력한 정책 지원에서의 진전 속에 경제 활동과 고용 지표가 강화됐다.</p> <p>경제의 경로는 백신 접종의 진전을 포함해 바이러스의 진로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중 보건 위기는 경제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도 계속 남아있다.</p> <p>물가가 지속해서 이런 장기 목표를 밑돌고 있어서, 위원회는 일정 기간 물가가 2%를 완만하게 웃돌아 향후 물가가 평균 2%가 되고, 장기 물가 기대가 2%에 잘 고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p>	<p>Progress on vaccinations has reduced the spread of COVID-19 in the United States. Amid this progress and strong policy support, indicators of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have strengthened.</p> <p>The path of the economy will depend significantly on the course of the virus. Progress on vaccinations will likely continue to reduce the effects of the public health crisis on the economy, but risks to the economic outlook remain.</p> <p>With inflation having run persistently below this longer-run goal, the Committee will aim to achieve inflation moderately above 2 percent for some time so that inflation averages 2 percent over time and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remain well anchored at 2 percent.</p> <p>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진전과 강력한 정책 지원 속에 경제 활동과 고용 지표가 강화됐다.</p> <p>경제의 경로는 바이러스의 진로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백신의 진전은 공중보건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줄여줄 것이다. 그러나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은 계속 남아있다.</p> <p>물가가 지속해서 이런 장기 목표를 밑돌아 오고 있어서, 위원회는 일정 기간 물가가 2%를 완만하게 웃돌아 향후 물가가 평균 2%가 되고, 장기 물가 기대가 2%에 잘 고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p>

자료: FED, 인포맥스,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3.31 기준)